

2026. 7. 13

소비재/플랫폼 Weekly

화장품 ODM 참 좋은데...

Analyst 오린아 _ 유통/화장품 lina.oh@ls-sec.co.kr



체크해야 할 업종 이슈

- ✓ 화장품 ODM 업황은 여전히 양호: K뷰티 수출 호조 + 국내 스케일업 브랜드들의 글로벌 확장
- ✓ 한국콜마: 2Q26E OP 938억원(YoY +27.6%) 예상: 섀케어 호조로 수익성 개선
- ✓ 코스맥스: 2Q26E OP 701억원(YoY +15.3%) 예상: 미국 법인 흑자 가능성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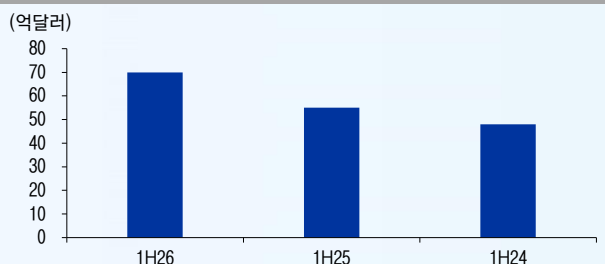
이번주 업종 코멘트/전망

그림1 화장품 월별 수출액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역대 상반기 화장품 수출액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LS증권 리서치센터

화장품 ODM 참 좋은데...

화장품 ODM 업황은 여전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 2026년 상반기 국내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7.3% 증가한 70억 달러로 역대 상반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2분기 수출액 또한 39억 달러로 1분기 31억 달러 대비 25.8% 증가. 지역별로는 미국 수출액이 14.5억 달러로 전체의 20.7%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비중 20%를 돌파했고, 2025년에 이어 최대 수출국 지위를 유지. 반면 중국 비중은 2022년 상반기 46.5%에서 올해 14.4%까지 축소되며 의존도가 빠르게 낮아지고 있음.

품목별로는 기초화장품이 성장을 견인. 상반기 기초화장품 수출은 54.8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5.0% 증가한 반면, 색조화장품은 7.2억 달러로 4.2% 감소. 특히 미국향 기초화장품 수출은 7.4억 달러에서 1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8.6% 증가하며, 효능 중심 스킨케어 수요가 현지 시장에서 본격화되고 있음을 확인. 지역 확장 또한 뚜렷함. 6월 1~25일 기준 권역별 수출은 미국 +51.7%, EU +78.9%, 중국 +26.6%를 기록했고, 영국(+150.6%), 네덜란드(+220.4%) 등 유럽 신규 시장의 성장세도 두드러짐. 이러한 흐름은 다수 브랜드사의 주문을 동시에 소화하는 ODM 구조에 직접적인 수혜로 작용. 올해 2분기 국내 ODM 업체들은 섀케어 성수기 효과와 수출 물량 증가가 동시에 반영되고 있으며, 미국 법인 또한 K뷰티를 표방하는 인디 브랜드들의 신제품 출시 확대에 힘입어 턴 어라운드 가시성이 높아지고 있음. 전반적으로 ODM 업체들은 국내 인디 브랜드의 글로벌 성장, 비중국 수출 확대, 미국 현지 생산 수요 증가라는 세 가지 축의 수혜를 동시에 받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업황 호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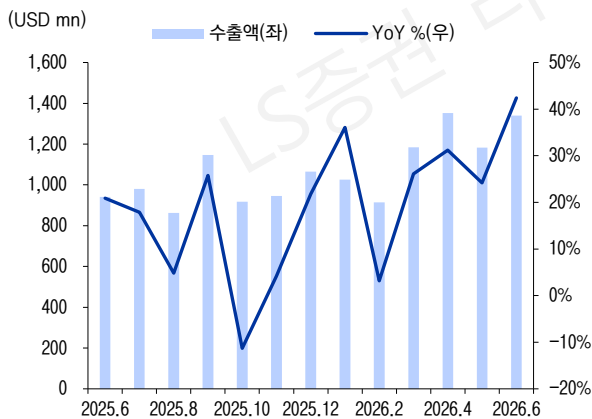
화장품 ODM 참 좋은데...

화장품 ODM 참 좋은데...

화장품 ODM 업황은 여전히 양호하다. K뷰티 수출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스케일업/인디 브랜드들의 글로벌 확장이 ODM 업체들의 수주 증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26년 상반기 국내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27.3% 증가한 70억달러로 역대 상반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2분기 수출액은 39억달러로 1분기 31억 달러 대비 25.8% 증가했으며, 2024년 1분기 이후 분기 수출 증가율이 10분기 연속 두 자릿수(22.9~38.8%)를 유지하고 있다. 6월 수출은 13.4억 달러(YoY +42.5%)로 8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역대 월간 2위를 기록했다. 성장의 질적 구조도 개선되고 있다. 미국이 수출액이 14.5억달러로 전체의 20.7%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비중 20%를 돌파했고, 2025년에 이어 최대 수출국 지위를 유지했다. 반면 중국 비중은 2022년 상반기 46.5%에서 올해 14.4%까지 축소되며 의존도가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중국 리스크에 대한 시장의 오랜 우려가 실제 수출 데이터상 다변화로 해소되고 있다는 점에서, ODM 업체의 구조적 성장 여력이 재확인되는 국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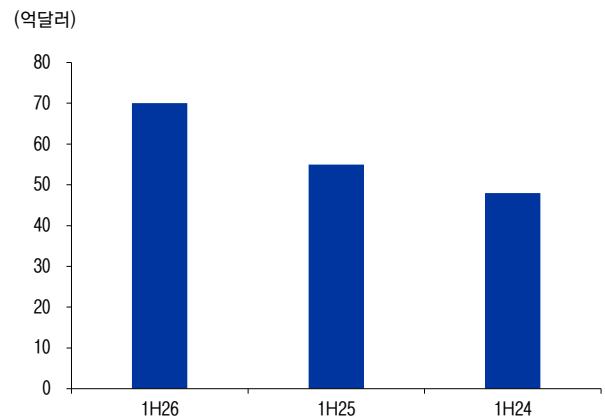
품목별로는 기초화장품이 성장을 견인했다. 상반기 기초화장품 수출은 54.8억달러로 전년대비 25.0% 증가한 반면, 색조화장품은 7.2억달러로 4.2% 감소했다. 특히 미국에서 기초화장품 수출이 7.4억달러에서 11억 달러로 YoY 48.6% 증가하며, 효능 중심 스킨케어 수요가 현지 시장에서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지역 확장도 뚜렷하다. 2026년 6월(6/1~25) 권역별 수출은 미국 +51.7%, EU +78.9%, 중국 +26.6%로 미국과 유럽이 성장을 주도했으며, 영국(+150.6%), 네덜란드(+220.4%) 등 유럽 신규 시장이 급증했다. 이러한 흐름은 다수 브랜드사의 주문을 동시에 소화하는 ODM 구조에 직접적인 수혜로 작용한다. 더불어 스케일업 단계에 진입한 고객사들의 반복 주문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올해 2분기 국내 ODM 업체들에게 선행 효과와 수출 물량 증가가 동시에 반영되고 있으며, 중국 법인들은 대형 고객사 중심으로 안정적인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 법인 또한 K뷰티를 표방하는 인디 브랜드들의 신제품 출시 확대와 색조 카테고리 호조에 힘입어 턴어라운드 가시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ODM 업체들은 국내 인디 브랜드의 글로벌 성장, 비중국 수출 확대, 미국 현지 생산 수요 증가라는 세 가지 축의 수혜를 동시에 받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업황 호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그림1 화장품 월별 수출액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역대 상반기 화장품 수출액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LS증권 리서치센터

한국콜마: 2Q26E OP 938억원(YoY +27.6%) 예상

한국콜마의 2Q26E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2.7% 증가한 8,237억원,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27.6% 증가한 938억원으로 기존 추정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법인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2% 성장한 4,002억원으로 추정한다. 섀케어 성수기 효과와 수출 비중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영업이익률 또한 기존 추정치를 상회하는 15.5% 수준까지 개선될 것으로 판단한다. 중국 법인은 기존 고객사의 안정적인 성장에 더해 우호적인 환율 효과가 반영되며 15% 수준의 매출 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미국 법인은 올해 상반기 누적 매출액이 약 300억원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되며, 2Q 영업적자는 18억원 수준을 예상한다. 연우는 고객 다변화를 통한 제품 믹스 개선이 나타나고 있어, 영업이익률 3% 수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하반기에도 국내 법인은 스케일업 브랜드 고객사의 주문 지속과 수출 물량 확대에 힘입어 과거 대비 계절성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법인 또한 3분기부터 낮은 기저가 형성되는 가운데, 수주 회복 효과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표 1 한국콜마 분기/연간 실적 추정

(억원)	1Q25	2Q25	3Q25	4Q25	1Q26	2Q26E	3Q26E	4Q26E	2025	2026E	2027E
추정 실적											
매출액	6,530.9	7,308.0	6,830.1	6,555.2	7,280.0	8,237.2	7,936.4	7,493.3	27,224.3	30,946.9	33,597.7
한국	2,743.0	3,281.0	3,222.0	2,683.0	3,430.0	4,002.8	3,853.5	3,131.1	11,929.0	14,417.4	15,775.8
중국	416.0	499.0	318.0	329.0	473.0	573.9	341.5	357.6	1,562.0	1,746.0	1,955.5
미국	217.0	184.0	81.0	67.0	134.0	163.8	178.2	201.0	549.0	677.0	757.4
캐나다	87.0	100.0	92.0	80.0	84.0	98.0	92.9	80.8	359.0	355.7	366.2
HK 이노엔	2,474.0	2,631.0	2,608.0	2,919.0	2,587.0	2,770.4	2,939.2	3,210.9	10,632.0	11,507.6	12,313.1
연우	637.0	707.0	618.0	547.0	624.0	719.0	648.9	579.8	2,509.0	2,571.7	2,751.8
영업이익	599.0	735.0	583.3	478.6	789.0	938.0	811.7	664.0	2,395.9	3,202.7	3,544.7
한국	339.0	490.0	443.0	223.0	512.0	620.4	558.8	266.1	1,495.0	1,957.3	2,064.1
중국	18.0	61.0	-16.0	-16.0	32.0	63.1	20.5	17.9	60.0	133.5	165.8
미국	15.0	-2.0	-64.0	-83.0	-37.0	-18.0	-30.3	-20.1	-134.0	-105.4	-37.9
캐나다	-13.0	3.0	-13.0	-31.0	-17.0	-14.7	-13.9	-9.7	-54.0	-55.3	-36.6
HK 이노엔	254.0	195.0	259.0	401.0	332.0	296.4	296.9	439.9	1,109.0	1,365.2	1,464.1
연우	-10.0	8.0	-2.0	8.0	-3.0	18.0	6.5	6.4	4.0	27.8	27.5
성장률(%)											
매출액	13.6%	10.7%	9.0%	11.0%	11.5%	12.7%	16.2%	14.3%	11.0%	13.7%	8.6%
한국	10.7%	10.5%	17.8%	11.2%	25.0%	22.0%	19.6%	16.7%	12.6%	20.9%	9.4%
중국	6.4%	-5.3%	-13.1%	10.0%	13.7%	15.0%	7.4%	8.7%	-1.3%	11.8%	12.1%
미국	210.0%	37.3%	-53.7%	-66.5%	-38.2%	-11.0%	120.0%	200.0%	-5.2%	23.3%	11.9%
캐나다	-3.3%	-20.6%	0.0%	-8.0%	-3.4%	-2.0%	1.0%	1.0%	-9.1%	-0.9%	3.2%
HK 이노엔	16.4%	20.0%	13.6%	23.8%	4.6%	5.3%	12.7%	10.0%	18.5%	8.2%	7.1%
연우	-5.2%	-4.5%	-15.1%	-11.1%	-2.0%	1.7%	5.0%	6.0%	-8.9%	2.5%	7.2%
영업이익	84.7%	2.5%	6.9%	36.2%	31.7%	27.6%	39.2%	38.7%	23.6%	33.7%	10.7%
수익성(%)											
영업이익률	9.2%	10.1%	8.5%	7.3%	10.8%	11.4%	10.2%	8.9%	8.8%	10.3%	10.6%
한국	12.4%	14.9%	13.7%	8.3%	13.0%	15.5%	14.5%	8.5%	12.5%	13.6%	13.1%
중국	4.3%	12.2%	-5.0%	-4.9%	6.8%	11.0%	6.0%	5.0%	3.8%	7.6%	8.5%
미국	6.9%	-1.1%	-79.0%	-123.9%	-27.6%	-11.0%	-17.0%	-10.0%	-24.4%	-15.6%	-5.1%
캐나다	-14.9%	3.0%	-14.1%	-38.8%	-20.2%	-15.0%	-15.0%	-12.0%	-15.0%	-15.6%	-10.2%
HK 이노엔	10.3%	7.4%	9.9%	13.7%	12.8%	10.7%	10.1%	13.7%	10.4%	11.9%	11.9%
연우	-1.6%	1.1%	-0.3%	1.5%	-0.5%	2.5%	1.0%	1.1%	0.2%	1.1%	1.0%

자료: 한국콜마, LS증권 리서치센터

코스맥스: 2Q26E OP 701억원(YoY +15.3%) 예상

코스맥스의 2Q26E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8.7% 증가한 7,402억원,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5.3% 증가한 701억원으로 기존 추정치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법인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5.5% 성장한 4,857억원으로 추정한다. 스킨케어 내 효능 중시 트렌드와 함께 크림, 미스트, 에센스 등의 신제품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상위 고객사들의 수주가 꾸준히 이어지는 모습이다. 겔마스크 카테고리 또한 성장이 지속되면서 마진에 일부 압박이 있겠지만, 기존 수익성에 기여했던 색조 고객사들의 역성장 폭이 1분기 대비 완화되고 스킨케어 제품 주문 호조 등으로 국내 법인 수익성은 방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법인은 20% 수준 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며, 대형 고객사 위주의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법인이 실적이 고무적일 것으로 보이는데, 매출 성장률은 50% 이상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영업이익 흑자 기록 또한 가시성이 높아졌다. 색조 부문의 호조가 지속되고 있고 K뷰티를 표방하는 제품들의 신규 출시가 증가하면서 하반기까지 모멘텀이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 인디 브랜드의 성장세를 흡수할 수 있는 현지 법인의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ODM 업체 중에서도 차별화된 성장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한다.

표2 코스맥스 분기/연간 실적 추정

(억원)	1Q25	2Q25	3Q25	4Q25	1Q26	2Q26E	3Q26E	4Q26E	2025	2026E	2027E
추정 실적											
연결 매출액	5,886	6,236	5,856	6,010	6,820	7,402	6,614	6,822	23,988	27,658	30,755
한국	3,628	4,205	3,835	3,597	4,232	4,857	4,334	4,075	15,265	17,498	19,261
해외	2,449	2,226	2,136	2,552	2,837	2,720	2,450	2,929	9,363	10,936	12,234
코스맥스 이스트	1,627	1,486	1,400	1,814	1,947	1,788	1,557	2,021	6,327	7,313	7,758
인도네시아	296	209	215	257	227	247	280	347	977	1,100	1,375
코스맥스 웨스트	287	300	369	370	420	450	443	437	1,326	1,749	1,942
코스맥스 태국	239	231	152	111	243	236	170	124	733	773	1,160
연결 영업이익	513	608	427	409	530	701	569	576	1,957	2,375	3,111
한국 영업이익	343	499	343	360	380	486	377	326	1,545	1,569	1,858
성장률(%)											
연결 매출액	11.7%	13.1%	10.5%	7.7%	15.9%	18.7%	12.9%	13.5%	10.7%	15.3%	11.2%
한국	15.0%	20.8%	10.3%	3.9%	16.6%	15.5%	13.0%	13.3%	12.4%	14.6%	10.1%
해외	28.2%	21.4%	35.4%	28.2%	15.8%	22.2%	14.7%	14.8%	28.1%	16.8%	11.9%
상해	1.3%	11.4%	26.4%	22.6%	12.8%	20.2%	12.2%	12.5%	14.2%	14.5%	7.0%
광저우	3.6%	-17.0%	14.6%	9.0%	7.8%	18.0%	11.0%	12.0%	1.9%	12.0%	12.0%
인도네시아	22.8%	-17.7%	-33.4%	-18.2%	-23.3%	18.0%	30.0%	35.0%	-13.7%	12.6%	25.0%
코스맥스 웨스트	-26.0%	-16.7%	13.5%	24.2%	46.3%	50.0%	20.0%	18.0%	-3.3%	31.9%	11.0%
코스맥스 태국	151.6%	124.3%	36.9%	-11.9%	1.7%	2.0%	12.0%	12.0%	68.5%	5.5%	50.0%
연결 영업이익	13.0%	30.2%	-1.6%	2.8%	3.2%	15.3%	33.2%	40.8%	11.6%	21.3%	31.0%
한국 영업이익	13.9%	44.6%	-13.2%	4.0%	10.8%	-2.6%	9.9%	-9.4%	11.4%	1.5%	18.5%
수익성(%)											
연결 영업이익률	8.7%	9.7%	7.3%	6.8%	7.8%	9.5%	8.6%	8.4%	8.2%	8.6%	10.1%
한국 영업이익률	9.5%	11.9%	8.9%	10.0%	9.0%	10.0%	8.7%	8.0%	10.1%	9.0%	9.6%

자료: 코스맥스, LS증권 리서치센터

표3 국내 소비재/플랫폼 주간 수익률

	현재가 (pt, 원)	시가총액 (억원)	수익률 (%)							P/E			P/B		
			1W	1M	3M	6M	12M	YTD		2025	2026E	2027E	2025	2026E	2027E
코스피	7,476	61,186,043	-7.6	-3.3	27.6	63.0	134.9	77.4	-	-	-	-	-	-	-
코스피 대형주	8,244	56,789,738	-8.0	-3.1	32.2	70.9	160.2	88.3	-	-	-	-	-	-	-
코스닥	837	4,710,007	-3.6	-12.0	-23.4	-11.7	5.0	-9.5	-	-	-	-	-	-	-
코스피 중형주	4,049	3,482,751	-3.2	-6.8	-9.5	8.2	13.5	8.8	-	-	-	-	-	-	-
코스피 소형주	2,317	876,808	-0.1	-3.0	-17.4	-6.1	-11.9	-8.0	-	-	-	-	-	-	-
유통															
코웨이	89,900	63,620	-5.8	-2.3	19.1	12.9	-9.9	3.5	10.6	8.9	7.7	1.7	1.5	1.3	
호텔신라	50,400	19,781	-1.0	-10.2	0.6	12.4	1.3	13.0	-14.0	17.9	13.2	1.7	1.6	1.4	
BGF 리테일	123,600	21,363	-0.6	-5.0	-5.7	19.5	-0.2	17.9	11.4	9.4	8.5	1.6	1.5	1.3	
GS 리테일	25,950	21,696	3.8	11.4	17.2	30.7	48.9	29.1	14.7	10.7	9.5	0.7	0.6	0.6	
롯데쇼핑	155,300	43,932	-7.2	-20.6	45.4	126.7	97.1	114.2	56.0	11.7	10.1	0.3	0.3	0.3	
신세계	629,000	59,410	-10.9	-8.2	84.5	141.5	234.9	154.7	58.7	15.7	13.7	1.3	1.1	1.1	
이마트	81,800	22,573	-2.0	-6.5	-13.4	n/a	-16.9	0.6	7.0	15.2	8.4	0.2	0.2	0.2	
현대백화점	167,100	36,035	-6.9	-2.2	106.6	82.0	113.4	88.6	16.6	12.9	10.1	0.8	0.7	0.7	
SK 네트워크스	8,580	17,211	-9.7	-33.8	60.1	98.4	80.4	89.8	35.4	21.7	24.4	0.8	0.8	0.8	
인터넷															
NAVER	191,300	300,234	-2.3	-15.7	-5.3	-24.7	-26.3	-21.1	14.0	16.0	13.2	1.0	1.0	0.9	
카카오	35,350	156,594	-0.4	-7.3	-25.9	-39.3	-41.9	-41.2	29.1	22.9	19.1	1.5	1.3	1.2	
게임															
크래프톤	238,000	109,808	1.1	2.6	0.2	3.5	-32.6	-3.3	12.9	10.0	8.9	1.4	1.3	1.1	
넷마블	37,550	30,766	-1.7	-6.1	-25.4	-22.7	-39.4	-22.2	10.2	8.1	8.9	0.5	0.5	0.5	
NC	248,500	53,537	-4.8	-3.3	3.5	11.4	20.3	23.3	14.9	11.6	10.7	1.4	1.3	1.1	
펄어비스	37,050	23,284	2.1	-7.6	-33.4	-1.9	-8.7	-0.9	-267.0	6.5	15.4	2.9	1.9	1.7	
카카오게임즈	8,340	8,944	6.2	-2.0	-31.4	-42.1	-54.9	-44.0	-5.6	-7.6	-114.9	0.6	0.8	0.8	
더블유게임즈	61,800	13,085	-5.2	-12.0	27.3	16.4	1.8	15.3	8.9	6.7	5.8	0.9	0.9	0.8	
NHN	38,150	12,495	7.0	-5.9	-0.1	17.0	30.7	31.3	35.3	11.2	9.1	0.8	0.7	0.7	
웹젠	11,960	3,704	3.4	10.5	-1.5	-3.5	-16.7	-7.3	14.4	11.1	8.9	0.5	0.5	0.5	
컴투스	27,350	3,307	4.6	9.4	-19.7	-9.3	-34.9	-5.9	69.3	12.2	7.3	0.3	0.3	0.3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123,100	72,005	1.6	10.1	-6.7	3.3	-9.9	3.0	31.7	23.8	21.0	1.6	1.5	1.4	
LG 생활건강	245,000	36,690	0.0	4.5	-1.6	-6.5	-25.5	-5.2	33.9	21.8	17.5	0.7	0.7	0.7	
실리콘투	37,600	24,657	4.2	9.0	-11.8	-13.9	-31.1	-2.7	13.6	11.1	8.9	5.5	3.7	2.7	
아모레퍼시픽홀딩스	24,300	18,579	1.3	5.0	-12.4	-6.7	-25.9	-9.5	14.9	n/a	n/a	0.7	n/a	n/a	
한국콜마	106,500	25,139	-9.6	28.3	35.0	68.3	-2.5	71.5	24.3	14.3	12.1	2.9	2.4	2.0	
코스맥스	172,700	19,601	2.6	5.2	-7.5	-1.1	-34.3	6.0	34.0	13.1	10.9	3.9	3.0	2.4	
브이티	12,230	4,273	3.0	-1.5	-21.9	-30.9	-64.3	-30.2	7.2	8.2	6.6	n/a	1.4	1.2	
코스메카코리아	83,000	8,864	1.0	18.6	4.7	18.6	24.8	24.6	18.1	12.9	11.2	3.4	2.8	2.3	
씨앤씨인터내셔널	20,200	2,753	1.1	4.9	-24.3	-36.9	-55.0	-31.9	12.3	15.1	13.5	1.3	n/a	n/a	
클리오	11,560	2,089	14.0	11.3	-3.8	-12.5	-28.9	-11.3	15.1	10.1	9.4	n/a	0.8	0.7	
한국화장품제조	8,030	1,820	-5.8	-3.6	-16.7	-18.7	-32.2	-17.9	n/a	n/a	n/a	n/a	n/a	n/a	
아이패밀리에스씨	8,580	1,431	2.6	-2.2	-23.7	-44.2	-52.6	-37.1	6.2	6.0	5.0	1.3	n/a	n/a	
마녀공장	16,510	2,707	7.0	19.0	29.3	13.3	-12.4	20.6	n/a	n/a	n/a	n/a	n/a	n/a	

자료: Quantiwise, LS증권 리서치센터

주: 2026.7.10 종가 기준

한국콜마 목표주가 추이

(원)

주가

목표주가

140,000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24/07

25/01

25/07

26/01

26/07

투자의견 변동내역

일시	투자 의견	목표 가격	과리율(%)			일시	투자 의견	목표 가격	과리율(%)		
			최고 대비	최저 대비	평균 대비				최고 대비	최저 대비	평균 대비
2024.10.04		커버리지 제외									
2025.03.05	신규	오린마									
2025.03.05	Buy	73,000	3.4		-8.0						
2025.04.25	Buy	90,000	21.3		-2.7						
2025.07.11	Buy	130,000	-16.4		-35.1						
2025.10.21	Buy	120,000	-35.3		-43.6						
2026.02.26	Buy	98,000	2.9		-16.3						
2026.06.09	Buy	120,000									

코스맥스 목표주가 추이

(원)

주가

목표주가

400,000

350,000

300,000

250,000

200,000

150,000

100,000

50,000

0

24/07

25/01

25/07

26/01

26/07

투자의견 변동내역

일시	투자 의견	목표 가격	과리율(%)			일시	투자 의견	목표 가격	과리율(%)		
			최고 대비	최저 대비	평균 대비				최고 대비	최저 대비	평균 대비
2024.07.10	Buy	230,000	-20.7	-40.0							
2024.10.04		커버리지 제외									
2025.03.05	신규	오린아									
2025.03.05	Buy	250,000	12.8	-18.3							
2025.07.11	Buy	340,000	-21.8	-33.9							
2025.10.21	Buy	300,000	-30.5	-33.0							
2025.11.11	Buy	250,000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오린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12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Overweight (비중확대)			
	업종 비중 기준	Neutral (중립)			
	투자등급 3단계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Buy (매수)	+15% 이상 기대	90.3%	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준 ±15%로 변경
	투자등급 3단계	Hold (보유)	-15% ~ +15% 기대	9.7%	
		Sell (매도)	-15% 이하 기대		
		합계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25. 7. 1 ~ 2026. 6. 30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